

## 제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 4286(1953)년 6월 5일 오전10시 30분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19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김팔용,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박찬규, 김채용, 김자흥, 오세일, 김영완 의원

2) 불참의원:2명

문택호, 이문길 의원

4. 의사일정 :

1)개 회 식

5. 보고사항 :

1) 제 16, 17, 18회 임시의회 회의록

2) 목부간 여객열차 접속 건의의 건

3) 목광간 통학열차 운행 부활 건의의 건

4) 판초자공장 설치 현장시찰 결과의 건

5) 용당도선 진상조사 결과의 건

6) 제2회 시정감사 처리 전말 보고의 건

6. 부의안건 :

1) 각 분과위원장 개선의 건

2)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의 건

7. 개회선언

의장 유 정 두

( 오전 10시 50분 )

1) 개 회 식

◇ 서기

- 제 16, 17, 18회 임시의회 회의록 낭독

◇ 의장

-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음 (누기부분 삽입)

◎ 목부, 목광간 열차운행 부활 경과보고의 건

◇김 채 용 의원

- 중앙요로에 건의한 결과보고가 있었음 (속기록 참조)

◎ 판초자공장 설치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김 자 흥 의원

- 진상보고가 있었음 (속기록 참조)

◎ 제2회 시정감사 처리전말 보고의 건

◇정 응 표 의원

- 본 건은 전반 감사반별로 상세히 검토하여 차기 의회에 회부토록 하자 긴급동의

◇의장 유 정 두

- 긴급동의가 성립되니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9명 전원 가결

◇서기 박 찬 대

- 대한군인유족회 목포분회에서 제출된 건의문 낭독

◇정 응 표 의원

- 유가족회 대표 1명을 시구호위원회 위원으로 해주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중 가 17, 기1, 가결

◇김 영 완 의원

- 작년 이 때 미창 사고미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에 달했는데 현재 상당한 외자가 입항되어 하역작업 하는 데 있어서 미창과 조운사이에 이윤관계로 갑론을박하고 있으며, 또한 입고시킬 창고 부족으로 야적하고 있는데 그 야적미가 침수되어 있는 현상이니 의회에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일임하여 조사토록하여 하루바빠 선처를 강구할 것을 긴급동의

◇임 일 남 의원

- 외자 선박이 속속 입항하고 있으나, 창고 부족으로 입고치 못하고 노적시키고 있는 형편이니 시내 각 회사의 유한 창고를 조사할 것을 의원의 동의에 첨가

◇김 삼 성 의원

- 본 의원이 부산에 출장하였던 바 금반 목포항에 입항된 배는 부산이나 여수로 갈 것인데 길을 잘못 들어 목포항에 입항되었다 하며, 만톤급의 선박은 걸려서 4천톤급 이상이 입항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금반 입항한 선박에게 급수를 완전히 못하였다는데 이러한 급수의 불편한 사정이 있었는가?

시장의 답변을 요하며,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사할 것을 동의에 첨가

- 급수문제에 대하여 의원측과 건설과정간에 질의응답 약 10분간 있었음  
(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의장 유 정 두

- 김영완 의원 동의의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전원 찬성가결

- 5일 이내에 조사하여 다음 의회에 상정토록 하자

◇김 삼 성 의원

- 외국 선박이 입항하게 되면 시장이나 의회에서 찾아가 환영토록 하자

◇이 재 흥 의원

- 시 인사문제를 위요하고 시의원들이 간섭을 하며, 인사 브로커라는 말이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브로커라 함은 구전을 먹고 커미션을 먹는 것인데 시의원들이 구전이나 커미션을 먹은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 의원을 모독하는 것인가?

사실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긴급동의

◇의장 유 정 두

- 이 문제에 대하여 전남일보 위계영씨를 만나 시의원이 인사 브로커라는 신문기사는 유감이라고 말하였던 바 인사행정에 지나친 간섭을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면 인사행정에 있어 의원들이 무간섭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적합한 사람만 있다면 추천하여 좋은 행정을 추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일 것이며, 시정계장에 박찬대를 추천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결부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시민의 복리를 위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의장의 입장으로 추천하였던 것이며, 박찬대로 말하면 의회 간사로 때로는 서기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해왔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의 입장에서 추진했던 것이다.

- 인사문제에 대하여 의원간에 토론 약 20분간 있었음

(내용 속기록 참조)

◇이 소 규 의원

- 인사의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단지 의원은 추천하였던 것이지 브로커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에서 물어 보았더니 즉시 시정계장의 발령을 단행하려고 했던 것이 모의원이 각기 추천하여서 시장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였다 하며, 마침 시장님의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장님이 과단성있게 단행을 못한 탓이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브로커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만둘 것을 개의

◇이 복 주 의원

- 신문 기사 중에는 브로커라는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한 것이 내포되어 있  
으며, 12명의 연서로서 진정서까지 행정당국에 제출되어 있다 하니 보류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조사하자

※ 사회에 이소규 부의장씨와 교체

※ 인사 브로커에 대한 의원간에 논의 약 10분간 있었음(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임 일 남 의원

- 토론을 중지하고 가부 결정할 것을 동의

◇부의장 이 소 규

-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보류하  
자는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중 가 7, 기 11,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8명 중 가 8, 기 10, 부결

※ 동안을 폐기선언

※사회를 의장과 교체

◇진 복 춘 의원

- 1, 4반기 영업세 배시액 감액에 있어 2할 이상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2할밖에 감액되지 않았다는 시민의 불만이 자자하고 있으니, 조사위원  
5명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규명해서 각 신문에 보도케 함과 동시에 세무 행정  
에 협력토록 하자 동의

※본 동의안은 국가사무에 관련되므로 철회

◇정 응 표 의원

- 금반 실시하고 있는 세궁민 배급에 있어 배급 가격이 시판 가격 보다 비싸서 수배치 않고 있는 현상이며, 이는 세궁민을 위해서 배급하는 취지에 어그러진 일이니 2월 1일 이전 가격으로 인하하도록 의회의 결의로서 중앙당 국에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9명 중 가 14, 기 5로 가결

◇임 일 남 의원

- 교통부 직영으로 해양대학 부설 상선학교를 설치한다 하니 우리 목포고 등상선학교의 실정을 보면 재정난에 봉착하여 유지키 어려운 현상이니 금반 해대 부설교로 이관하기 위하여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9명 전원 가결

- 속회선언

(오후 3시)

※ 김자홍, 오세일 의원 불참

◎ 분과위원장 개선의 건

◇김 경 현 의원

- 분과위원장 개선을 전 의원이 참석한 연후에 선거하자 동의 (재청)

◇진 복 춘 의원

- 전 의원 참석은 곤란하니 각 분과위원별로 과반수 참석이 되었으면 선거할 것을 개의(재청)

◇김 삼 성 의원

- 각 분과위원장 선거는 되도록이면 전원 참석해야 될 것이니 다음 의회에 선거하기로 연기할 것을 재개의 (재청없으므로 폐기)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1명 중 가 10, 기 1, 가결

※ 준비위원으로서 김삼성, 박찬규, 정응표 의원을 지명

◇김 남 진 의원

- 지난번 의회에서 가결을 본 중앙도매시장과의 체결은 50일 이내에 범인 등기한 연후에 하기로 보류되었는데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지 행정부의 답변을 요함

◇산업과장 박 연 태

- 통화조치로 말미암아 지연되었으며, 이달 10일까지는 완전히 끝을 마치고 개시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음

◇김 남 진 의원

- 만약 10일까지 체결을 못하고 경과하게 된다면, 시 행정부에서 수수료만이라도 수입하도록 시행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이달 10일까지 기다리기로 하자 동의

◇김 삼 성 의원

- 변명한다는 것은 시재정 확보에 방관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달 10일까지 연기해서도 안되면 동의안대로 할 것을 첨가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1명 중 전원 가결

◇정 응 표 의원

- 세국민 배급에 각종 공과금을 첨부하므로 현재까지 수배상황을 보면 5할 5푼 정도밖에 수배치 않은 실정이며, 또한 변절기에 있어 전염병 환자가 속출되어 가는데 대성병원에는 의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약품도 없으며, 사

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부 임금을 지불치 않아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병무협회비를 징수하면서 제5차 노무자 식량대라 하여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요함

※ 해당 각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음 (속기를 참조)

◇진 복 춘 의원

- 해방 이후 청년들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이 마당에 단사무소의 철거명령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며 단간판도 없어진 현상에 있고, 현하 각종 잡부금으로 시민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우리는 한 끼니를 굶더라도 청년단을 살려할 할 것이며 또한 중앙으로부터 최소한 30환 정도는 받게끔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도 받고 있으니 우리 목포시에도 전 세대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극빈세대를 제외하고 절반만 부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 목포시의 재정상황을 보건대 작년도의 결산을 보지 못한 고갈상태에 비추어 청년단이라 해서 부과하게 되면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해서 청년단을 살리지 않을 수 없으니 호별세 등급 12등급 이상으로 썬 상이가족, 군경유가족, 극세궁민 세대를 제외하고 30원을 20원으로 삭감 해서 부과할 것을 개의회하다.

- 재청이 있었다.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1명 중 가 8, 기 2, 가결

◎ 공설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개정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질의응답을 해주기 바람

※ 질의응답 약 10분간 있었음

◇임 일 남 의원

- 본 건은 수차 논의한 바도 있고 시민의 부담을 감소키 위하여서도 타당하니 질의응답을 끝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이 있었다.

◇진 복 춘 의원

- 외선들이 입항하여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는 중동시장변도로이며, 중동시장을 이용하는데 중동시장 옥상이 파손되어 있으니 옥상 수리할 것을 동의에 참가 (동의집 수락)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1명 전원 가결
- 회의록 서명에 김삼성, 진복춘 의원을 지명
- 폐회선언

(오후 5시 5분)

◇ 폐 회 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6월 5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김 삼 성

” : 진 복 춘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 제19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오 전)

### ◇의장 유 정 두

- 오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 선거와 주요한 안건임에 신중히 토의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 47조를 본다면 지방의원은 타인의 신분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탁할 것은 서로가 정치적으로나 혹은 정실 등에 의하여 선거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한이 1년간이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할 것이며, 오늘 우리 의원이 21명인데 19명이라 할지라도 신중히 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 ◇서기 박 찬 대

- 제16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낭독하였음.

### ◇의장 유 정 두

- 방금 낭독하는데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전원 통과하였습니다.

### ◇서기 박 찬 대

- 제16회 제2CJK 회의록 낭독하였음

###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원 통과하였습니다.

### ◇서기 박 찬 대

- 제17회 임시회의 회의록 낭독하였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 남 진 의원

- 제17회 의회 소집시 각 의원에게 공문을 전달하여 소집하였는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북진통일의 긴급을 요하므로 그날 역전으로 각 의원들이 오실줄 알고 그 자리에서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던 바 불참의원에게 전달치 못하였습니다.

◇김 남 진 의원

- 이것은 합법적이 아닌 것으로 몰라 불참한 것인데 불참이라 하여 놓으면 불미하온 바 전원 참석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었습니다.

◇임 일남 의원

- 통지를 못 하였으므로 전원 참석으로 하여서 통과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전원 참석으로써 수정 통과합니다. 전원 통과하였습니다.

◇서기 박 찬 대

- 제18회 임시의회 회의록 낭독하였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 찬 규 의원

- 지난 의회 때에 청년단 사무소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이 아니고 차기로 보류하자는 것인지 수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임 일 남 의원

- 5월 1일 의회도 전원 참석으로 수정 작성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 삼 성 의원

- 청년단 경비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에 책임자로부터 설명 요구의 동의가 있었는데 빠졌음에 수정 작성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장 유 정 두

- 수정함과 동시에 전원 참석으로 하여서 전원 통과하였습니다.

◇김 채 용 의원

- 이번에 본 의원이 우리 시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작성한 건의문을 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또한 구두로 여러가지의 사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주-목포간의 학생열차 부활의 건의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본 의원이 중앙에 갔을 때는 교통부장관과 차관은 출장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지방으로 출장중이며, 목포까지도 다녀오신다 하기로 목포의 실정을 잘 알고 오실 줄로 믿고 건의문을 전달함과 동시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 구두로 목포 실정을 말씀한 바, 물론 목포의 연안 등지도 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적으로 곤란하다고 하며, 이런 실정을 친히 말하여 주니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하며, 국장의 말씀이 현재 군에서는 7, 8할이며, 일반 민간의 수송이 불과 1, 2할에 불과하므로 실정이 곤란하니 불원 실시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쓸 차를 곧 수리하여 광주 목포간의 학생열차로 부활하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참고로 우리 식구끼리 모였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건의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때 불비한 점이 많기로 건의문을 그만두고 구두로써 직접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전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내용에 가서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또 다시 내가 작성할까도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책임자 되신 분이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하며,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판초자공장 설치 원료 현지 답사의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김 자 흥 의원

- 지난번에 옹크라에서 미국인이 와서 강선명과 중앙 상공국장, 그리고 서울 공과대학장과 같이 원료 생산지를 조사한 결과 대단히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에는 90%가 포함되어 있으며, 적당한 것은 자은면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도선장 진상조사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김 경 현 의원

- 지난번 김영완 의원의 동의로써 의원하고 실지 현장을 조사 하였던 바 그날 영암출신 도의원과 금융조합 직원 외 영암 유지들이 와서 배를 빌려달라 해서 오후 3시까지 약 1시간의 여유가 있기로 빌려주었던 것이 가제도에 가서 배가 걸리어서 3, 4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다른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 없으면 제2회 시정 감사 보고 전말처리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정 응 표 의원

- 제2회 시정 감사 전말보고는 지난번 감사반별로 먼저 회람시켜서 1차 감사반에게 보여 주도록 하며, 그래서 본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동의를 성안되었으므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 민원서류에 대하여 여자중학교에서 온 것은 집행부에 일임하고 어장 옷선창 문제는 완전 합의를 보았기로 그만두고 군인유가족회에서 오는 것은

건의하고 토의를 하기로 합니다.

의원 2명의 소개로 되었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인원 문제가 아남에(자료 누락)

◇의장 유 정 두

- 본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8명 중 1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 건의문은 사무 당국에 일임하기로 합니다.

◇김 영 완 의원

- 작년에도 이 때에 비가 와서 미창에 사고미만 하더라도 상당한 숫자에 달했는데 하역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미창은 조운으로, 조운은 미창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본다면 갑론을박으로써 시에 와서 타합을 하였던 바 그 내용이 막연하므로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다고 봅니다.

전번에 선창을 돌아 보았더니 입고할 창고 부족으로 야적되어 비가 오면 대단히 곤란한 형편임에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시의회로 하여금 조사하여 선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1,300가마란 쌀이 부패되어 광주의 모 주조장에서 사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산같은 데는 수송공사가 책임지고 하역 등을 하므로 지장이 없으나 목포에는 그렇지 못함에 이 문제를 본 의원은 산업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긴급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 3청)

◇임 일 남 의원

- 목포항에 대형선박이 입항되면 하역을 조운과 미창에서 하고 있는데 창고 등은 많이 없으므로 대단히 복잡성을 띠고 있음이 사실이며, 기타 회사 등에서는 창고 등이 많은 있는데 업자의 영업방침이므로 잘 주지도 않고, 빌려준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주라하는 현실에 비추어, 모든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본 의회에서 조사 선처할 것을 김영완 의원의 긴급동의에 참가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개의를 없으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 삼 성 의원

- 본 의원이 부산 출장중에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금반 목포항에 입항된 배는 부산이나 여수로 갈것인데 잘못 들어 목포로 입항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웅크라 부책임자 맥이스 말을 들어 본다면 목포항에는 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하게 되면 걸려서 최대 7천톤도 못 나온다고 생각하며, 해군송사에서 목포항에는 4천톤 이상은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는 1만 2천톤의 선박이 들어왔고, 또 만톤의 선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반에 목포에 들어온 선박에서 급수를 완전히 못하였다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이러한 급수의 불편한 사정이 있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동의에 첨가하여 동일에 조사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외국함이 들어오면 급수 사정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진 복 춘 의원

- 지금 목포에 있는 급수함이 8톤밖에 못 싣는다는데 들어오는 외국선박은 3백톤, 4백톤의 물을 싣게 되어 1회 8톤씩을 운반하게 되면 수십회를 내왕하여 급수하는데, 사정액 이상을 받는 모양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임 일 남 의원

- 급수함이 지금 현재에 8톤 이상을 못 싣기에 곤란하므로 소방서 차를 오라고 하였던 바 돈을 주라고 했으나 그도 못한다고 하여 선박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 기 인

- 앞으로 외래 선박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최단 시일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삼 성 의원

- 외국 선박에 한하여 시간내에 급수를 하여 주었는가, 또는 급수를 완전히 하였는가를 조사함과 동시에 춘궁기에 우리 목포항에 외국 선박으로 말미암아 2억환이라는 돈이 목포에 들어 왔다고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었으며, 5일 이내에 조사하여 다음 의회에 상정 보고하도록 합니다.

◇김 삼 성 의원

- 외국 선박이 우리 목포에 왔다 가면 우리의 자방 실정이나 인심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 비추어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시장이나 의회에서 찾아가 환영을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재 흥 의원

- 시 인사문제를 위요하고 시의원들의 간섭을 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전반에 광주에 갔다 오는 도중 기차 속에서 어떤 신사 2명이 신문을 보고 웃기에 무엇인가 하고 보았는데 목포시의원이 인사문제의 보로커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어 나도 그 신문을 한 장을 사서 보았는데 보로커라 함은 구전을 먹고 컨미션을 먹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구전이나 컨미션을 먹는 사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의원을 모독하는 것인가?

사실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남일보사 위계영씨를 만나서 시의원들이 인사 보로커라는 신문보도를 함부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였던 바 인사행정을 너무 간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행정은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다 하여서, 우리 시의원들은 무간섭하고 시장님에게만 일임하여 구워 먹든지, 지져 먹든지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소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하여 좋은 행정을 추진하며 참

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알고 신문에 보도한 것인지 대단히 유감이고, 또한 브로커라 함은 컨미션 등을 먹은 것인데 우리 시의원의 의장으로서 시정계장 문제를 시장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므로 박찬대를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제2회 시정감사를 볼 때 너무나 약체행정이며, 정실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음에 무엇보다도 의결부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시민의 권리를 취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박찬대로 말하면 간사로서, 때로는 서기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연락 등 공사간에 모 직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장으로서 시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바 브로커라 하였으니 내 자신도 규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목포시의원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실지를 규명 조사할 것입니다.

#### ◇정 응 표 의원

- 제가 생각컨대 의원 전원이 브로커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의원이 브로커 행동을 하였는가를 먼저 규명하여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 남 진 의원

- 언론이란 보지 않고는 신문보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거간책입니다.

그러면 브로커를 한 의원이 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계에 보도를 시켰는가에 대해 행정부의 답변을 요할 것을 동의에 첨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재 흥 의원

- 인사문제 관계보다도 브로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의장님이 규명하여 주십시오.

#### ◇이 소 규 의원

- 인사권 문제를 위요하고 인사의 결정권이 시장님에게 있음에 인사를 추

천하였던 것이지 브로커의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물어 보았더니, 즉시 시정계장의 발령을 단행하려고 하였던 것이 하루는 모모 의원들이 오더니 누구를 추천하라고 하고, 또 이튿날은 모 의원이 와서 누구를 해 주라고 하고, 또 앞날은 모 의원이 오더니 누구를 하여 달라 하여서 시장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시장님의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과단성 있게 단행을 하였더라면 될 것인데 못하였던 것이라 찾아 다니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주사를 서기로, 서기를 그만두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자기의 사람을 두려는 생각을 버리고 또한 브로커를 하였든지 못하였던지는 모르나 진상의 규명을 그만 두기를 개의합니다.

#### ◇이 복 주 의원

- 시장님이 즉시 인사발령을 못하였던 탓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한번 진상을 조사하여 21명의 의원이 이리 하였다면 강력한 압력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들어본 바에 의하면 11명의 날인 서명 등의 유형무형의 사실을 조사하기로 보류를 반대하며, 동의에 재청합니다.

#### ◇의장 유 정 두

-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시장 때 인사문제를 가지고 불신임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인사행정으로 말미암아 시장의 불신임은 천부당 만부당의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 우리 21명이 일치 단결하여 행정부와 의결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우리의 시정이 잘 될 것은 사실이며, 이리하여 박찬대는 종으로 횡으로 때로는 간사, 때로는 의회 서리기로써 의결부와 집행부간의 연락을 하여 왔으며 본인으로 하여서도 무자격자가 아님에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뿌로카라고 신문 보도가 되었음에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재 흥 의원

- 박찬대를 시의회의 의원들이 추천한 것을 말함이 아니고 신문에 브로커를 누가 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 ◇의장 유 정 두

- 의원중에서 브로커가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고 언론계에 전하

는 사람이 있다면 언론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 영 완 의원

- 의장의 그런 의견이시라면 사전에 21명 의원들과 타협 한마디 못하였습니까?

◇의장 유 정 두

- 인사행정은 기밀행정이기 때문에 기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의장 교체

◇부의장 이 소 규

- 토론은 이만 하고 동의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 영 완 의원

- 추천서에 11명이 날인하였다고 하는데 누구누구 입니까?

◇의장 유 정 두

- 11명이 아니라 12명이며, 자유당에서 추천하였으므로 나는 자유당 부위원장의 자격으로서 날인하였던 것입니다.

◇김 영 완 의원

- 시의회 의장 자격으로서 21명에게 타협을 못하였을까요?

◇부의장 이 소 규

-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그만두고, 책임을 규명할 것도 그만두고 동의에 개의를 있으니 결정하기로 합시다.

◇김 채 용 의원

- 방금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을 출장이었으므로 그 당시의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결론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에

대하여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인사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임에 지금에 와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인사 문제를 간섭하기에 그리되므로 지금부터는 절대로 시의원들이 간섭 않기로 하고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으므로 시장님 할 것 등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서는 시장님에게 일임하여 책임 규명을 할 것을 동의에 참가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의원으로서 인사 관계에 불참하기로 결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 채 용 의원

- 결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우리 의원으로서 결의를 못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므로 추천할 수는 있는데 말을 들어 본 바 2명을 추천한 모양인데 이는 추천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이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토론을 정지하기를 재개의합니다.

◇부의장 이 소 규

- 그러면 동의안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7표로 부결되었습니다.

- 동의안의 가부를 묻겠습니다. 8표로 부결되었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진 복 춘 의원

- 목포시의 수시징수로 말미암아 목포시민이 살게 되었으며, 목포시의 제2, 4반기의 세금이 2할 이상이 감소되었다 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우리 시의회에서 5명을 선정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목포세무서의 공로를 신문에 보도하여 일반 시민에게 알리기를 긴급동의 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목포시의회에서 세무서를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 주십시오.

◇박 찬 규 의원

-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목일에도 보도한 바와 같이 2할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목포에 16억5천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배세액 14억8천만원이 왔는데 그 후 세무서장이 중앙에 가서 교섭한 결과 수시분을 제하고 2억이라는 돈이 감액되었다 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춘궁기를 앞두고 시민의 배급이 나온 모양인데 현재 배급가격이 일반 시장의 가격과 별차이가 없으므로 수배치 않은 분이 상당히 있는 모양인데 들 어본 바에 의하면 정부 매도가격을 2월 1일 전의 가격으로써 수배하도록 중앙 요로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교체

◇의장 유 정 두

- 건의문은 사무 당국에 일임하기로 하여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전원 통과되었습니다.

◇임 일 남 의원

- 말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목포의 가장 자랑거리인 목포상선고등학교가 경제면에 비추어 이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교통부 산하에 새 해양대학을 설치한다는 바, 이렇게 되면 실습비만 하더라도 150만원, 16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상선고등학교를 교통부 산하에 두더라도 목포 실정에 맞도록 하여 주기를 주장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상선고등학교를 교통부장관에게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중앙이나 혹은 요로에 건의하여서 지방실정에 맞도록 할 것은 물론이지만 먼저 해결방침을 취하여가지고 건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건의문은 사무 당국에 일임하기로 하고 가라는 분은 거수를 하여 주십시오.

-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 휴회선언

(오후 1시 45분)

(오 후)

◇의장 유 정 두

- 속회선언

(오후 3시 15분)

- 오늘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경 현 의원

- 오후 회의로써는 각 분과위원장 선거인데 신중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 전원 참석하에 선거하여 주시기를 긴급 동의합니다.

- 재청, 3청, 4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각 분과위원장을 선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21명 전원이 참석하여 선거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선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 남 철 의원

- 김경현 의원의 말씀이 전원이라 말씀하였는데 오늘의 출석 의원을 말한 것입니까, 21명을 말한 것입니까?

◇김 길 환 의원

- 전원이 모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 선거합니다.

◇진 복 춘 의원

- 중대한 문제이므로 오늘 모인 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21명 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21명 전원이 모이기는 곤란함에 각 분과위원별 과반수만 되면 선거할 수 있으니 과반수만 되면 오늘 선거합니다. 개의 (재청)

◇임 일 남 의원

- 각 분과위원장 개선은 임기가 1년이므로 1년이 넘은 지가 오랜인 바 대단히 중대함에 21명이 모여서 선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1명은 불가능함에 이대로 둔다면 2년, 3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바, 오늘 선거할 것을 개의에 재청하여 말씀드립니다.

◇김 삼 성 의원

- 각 분과위원장의 선거는 되도록이면 전원 참석한 후에 선거하도록 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6, 7명이 불참하였는데 다음에 선거하기로 보류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개의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늘 선거 하자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 재석의원 16명 중 가 7표, 부 5표, 기권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 동의안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가 5표, 부 5표, 기권 6표로써 부결되고 개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진 복 춘 의원

- 오늘 내무분과위원장만은 여기서 선거하고 다른 위원장은 이 다음에 선거합시다.

◇김 영 완 의원

- 오늘만 하더라도 6명이 불참인 바 4, 5일 후에 개최하여 실행하도록 합시다.

◇김 남 진 의원

- 감표위원 2명은 의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 8표로써 가결되었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남진, 임일남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 재 흥 의원

- 전원 21명이 모이기는 곤란하다 하더라도 오늘은 6, 7명이 불참하였기에 다음 기회에 선거하기로 보류를 부탁드립니다.

◇정 응 표 의원

- 회의규칙을 무시한 것임에 선거하도록 합시다.

◇김 채 용 의원

- 각 분과위원장의 선거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였던 의원중에 2명도 퇴장하였고 아마도 사전에 충분한 타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사전의 타합이 안된 모양이므로 충분한 타합하에 선거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전반에는 임기의 전이어서 안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서 21명이 모이기는 곤란하고 전원이 모여서 선거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개의안은 전원이 아니라도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것도 부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무분과위원장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시작)

◇의장 유 정 두

- 개표 결과 내무분과위원장에 박찬규 의원이 5표로 당선되었음.  
기권 1표, 6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문교사회위원장의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 문교사회위원장에 김삼성 의원이 4표로 당선되었습니다.

- 산업분과위원장을 선거하겠습니다. (투표시작)

- 산업분과위원장의 투표결과를 개표하겠습니다.  
기권이 2표, 진복춘 의원이 2표로서 진복춘 의원이 산업분과위원장에 당선되었습니다.

※ 오후 4시에 이재홍, 김경희 의원 퇴장(양 의원 퇴장으로 성원 미달됨)

◇의장 유 정 두

- 징계분과위원장은 성원 미달로써 이 다음 성원이 되면 선거하기로 합니다.

◇김 삼 성 의원

- 우리 시의회에서 언제든지 논의된 바는 있지만 건설적인 의결을 하더라도 실시를 못하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작년도 제1기분 호별세의 징수상황을 볼 때에 이의신입이 천 건에 달하고

있으며, 1기, 2기 역시 이의 신청으로 말미암아 징수에 커다란 원인이 되어 현재 5할 1푼의 징수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므로 금년도 제1기분 호별세 부과에 있어서는 각 동별로 실정에 능통한 동유지 기타 시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의회에서 1명씩 3명 정도로 하여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정에 맞는 부과를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임 일 남 의원

- 제반 잡부금에 관하여서는 총무과장, 시장님이 어제 동장회의에서도 말씀하였지마는 직원을 파견하여 잘 조사하여 주십시오.

◇정 응 표 의원

- 식량 수배에다가 잡부금을 안 낸다고 하여 하여서 수배카드를 주지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진 복 춘 의원

- 해방 이후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나라 청년들에 비하여 희생을 당하였다는 것은 잘 아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목포시에 국가장래의 원동력이 될 청년단 사무실 1칸 정도가 없다 함은 무안군에 비하여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즈음 시민 담세력도 곤란하니 매호당 30환 정도로 각출하여서 사무를 볼 장소 정도는 만들어 줄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물론 청년이라하면 국가의 원동력인지는 잘 알고 있으며, 30환이 아니라 3천환씩이라도 각출하여 청년단의 경비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오나 시민의 생활고에 비추어 여러가지 부담금이 있는데 치도비만 하더라도 수입 여하로 만약 이달 10일까지 행정부에서 책임을 못진다면 시자치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시 자체로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김 삼 성 의원

- 청과물 도매시장의 운영은 기술입니다. 시 산업과에 일하는 것이 유감천만입니다. 3개월이 경과되도록 보고만 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의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정 응 표 위원

- 이번에 세공민을 위하여 배급을 주는 모양인데 동정세나 병무협회비, 치도비 등을 내지 않는다 하여서 수배카드를 주지 않는 동이 있으며 또한 시내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으나 주사가 없는 현실이고, 대성병원에는 의사가 없어 행려자들이 사망한 예가 있으며, 시청 인부들에게 식량을 배급하지 아니하여 일을 하지 않는 현실이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 정 두

- 시장님의 어떠한 복안은 없습니까?

◇시장 하 동 현

- 김의원 말씀 잘 압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로 연구한 결과, 시직원의 진영을 강화함이 타당하여 재무과에 정리계를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급 사정 등에 있어서는 동에 균일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전반 사무감사 보고를 보아 여러가지의 세금에 대한 부과자력등에 관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이 있음에 이번에는 15등급 이상 자격을 조사하는 자문기관을 둔다든지 하여 공정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복안보다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시 총무과장, 재무과장, 시의회에서 하고 해서 3명을 조직하여서 자력 조사를 할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성안되었습니다. (재청, 3청 하는 이 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10표로써 가결되었습니다.  
준비위원은 김삼성, 박찬규, 정응표 의원 3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김 남 진 의원

- 지난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 가결 본 청과물 도매시장건에 대하여 주식회사측으로부터 50일 이내에 법인 등기를 하기로 하여 보류하였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음에 어찌 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 연 태

- 그 후 대행 기관으로써 통화조치로 말미암아 주불입금이 못 되었다가 이달 10일까지는 완전히 끝을 마치고 10일부터는 개시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2월 13일에 의결을 보아 50일 이내에 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던 것이 시재정이 곤란함도 행정부의 책임이 큼니다.

◇김 남 진 의원

- 중앙도매물 시장에 관하여서는 50일이 경과하도록 법인 등기가 못되어 있음을 불문하고 불공평하게 징수한 현실임에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김 경 현 의원

- 모든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오나 세궁민을 제외하고 하여 주십시오.